

한국양계 농협 품목조합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 최대한 활용해야

홍보팀



지난해 서울경기양계농협, 대구 경북양계축협, 광주전남양계축협 3개 조합을 통합하여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이 출범하게 되었다. 통합 첫걸음부터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 발생, 통합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념이 없었던 이영재 조합장(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을 지난 9일 김용화 본지 편집장(대한양계협회 홍보팀 부장)이 만나 대담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편집자주 -

김용화 : 먼저 통합조합 출범 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정리하고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게 되는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통합 조합장에 취임하자 HPAI가 발생하였고, 전국으로 사업장이 넓어져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이영재 : 3개 조합이 통합되어 처리할 사안이 많은 시점에 HPAI 발생으로 방역상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불편함이 많았지만 중요한 사안이 조합원과 직원들의 협조로 원만히 처리가 되었고, 임직원 구조조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영업이익이 없는 매장은 폐쇄하는 작업을 마쳐 현재 우리 조합은 서울 본점, 대구 영남지역본부, 광주 호남지역본부를 두고, 신용점포 9개, 집하장 5개(경기 북부, 경기 남부, 대구, 목포, 영주), 난가공 공장 1개를 두고 있습니다.

경제사업 부문에서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농가에 사료 공급을 지양하여 사료 물량이 대폭 낮아졌으나 사업 건전성은 높아

지고 있습니다. 집하장 운영은 수탁사업으로 전환하고 만약 집하장이 적자가 나면 농가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유기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결제 조건은 농가에게 유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회원들의 요구를 100% 만족시킬 수 없어 안타까울 때가 많은 실정입니다.

김용화 : 조합원들의 관심사는 경제사업일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 후 범위가 넓어진 상태에서 경제사업부문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이신지요?

이영재 : 우리조합의 경제사업은 구매사업, 판매사업, 가공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올 사업규모는 약 688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료 구매사업은 철저한 컨설팅을 통한 조합원의 신뢰를 구축하여 조합원이 조합 사료를 전이용하도록 유도하며, 농가별 특성에 맞는 고품질 맞춤사료 생산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란 판매사업은 기존 대형마트와 계통농협의 하나로마트 등 직납거래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면서 유통센터 물류체계 기반확대 및 수익성 향상, 책임경영의 목표로 하며, 계란가공사업은 가공제품의 우량 판매처 확대 및 유통센터 물량의 안정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유통센터 물량을 소비하여 수요와 공급의 조절 기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김용화 : 새로운 조합이 탄생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 우량한 조합으로 발전시키는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기동안 펼쳐 나가실 경영 목표를 들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재 : 우선 3개 통합단계에서 불안정을 벗어나 경영 안정화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관리조합인 만큼 경제 사업부문을 활성화하여 조합원 이익 증대 효과를 가져오려면 상당한 고충도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합원에게 이 용고 배당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을 없애기 위해 판매사업과 구매사업의 조건을 농협중앙회에서 제시하는 수준에 부득이 맞추다 보면 조합원이 조합을 이



▲ 이영재 조합장

용하는데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관리조합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므로 모든 조합원이 참고 인내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으로 조합을 발전시키려면 화합과 단결이 필요합니다. 조합원간, 직원간 불편한 관계는 조합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계조합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전국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양계농가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양계농협의 성장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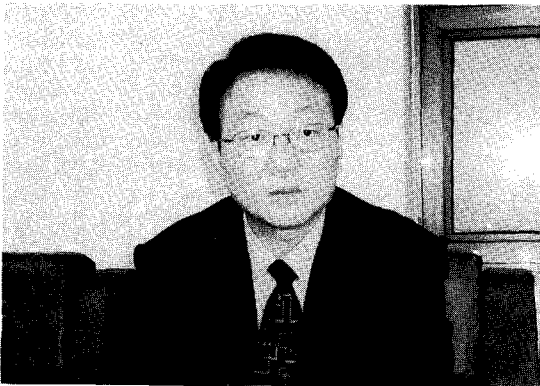
어쨌든 우리 조합은 과거를 교훈 삼아 관리조합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적자사업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독자조합으로 전환되기까지 전폭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화 : 최근 가금인플루엔자, 폭설로 양계농가들이 피해가 커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국양계농협 조합장님으로서 양계농가에 당부하실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이영재 : 먼저 경영상 어려운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 조합은 관리조합이므로 경영상 원칙대로 해야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전체 조합원수는 1,236명으로 이중 30~40명이 경영상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합의 미래는 영세농가들을 부농으로 만드는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조합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월 21일 사업장별 책임자 결의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사업장별 올해 목표를 달성토록 하였고, 오는 4월 20

일에는 안성에서 직원교육을 통하여 책임자 결의대회와 같은 취지를 밝혀 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조합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조합원인 양계농가도 같은 맥락에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내 조합원이나 직원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임기 후 재평가를 달게 받겠다는 각오로 조합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계**



▲ 김용화 부장